

보도시점 : 2024. 11. 12.(화) 11:00 이후(11. 13.(수) 조간) / 배포 : 2024. 11. 12.(화)

한-폴란드·스페인,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강화

- 진현환 제1차관, 11월 12일부터 4일간 폴란드 및 스페인 방문
- 폴란드 정상순방 후속조치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 개최
- 한-스페인 제3국 건설시장 진출협력 세미나 3년만에 재개...협력 모멘텀 확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진현환 제1차관이 폴란드, 스페인 2개 국가를 방문하여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진 차관은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하여 ‘한-스페인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세미나’에 참석하고, 스페인 교통·지속가능운송부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후,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하여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할 계획이다. 포럼에 참석하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 발주처 등과 양자면담도 예정되어 있다.
- 이번 폴란드, 스페인 방문 관련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진 차관은 11월 13일(수) 오전 주스페인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스페인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스페인 간 건설협력 현황과 향후 양국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양국은 '14년부터 해외건설협회 및 스페인건설협회 주관으로 건설협력 포럼 등을 6차례 개최해왔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은 유럽,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30개국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공동수주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강상태에 있었던 양국 건설협력의 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해 스페인 측 요청으로 3년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 또한, 진 차관은 스페인 교통·지속가능운송부 호세 안토니오 산타노 클라베로(José Antonio Santano Clavero) 차관을 만나 유럽, 북미, 중남미 등 제3국에서 양국 기업의 인프라 건설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이후, 폴란드를 방문하여 작년 7월 정상순방의 핵심의제였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삼각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우리기업의 폴란드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참여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 진 차관은 11월 15일(금) 오전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한다. 이는 폴란드 정상순방의 후속조치로서 주폴란드 대사관 주최 및 국토교통부 후원 형태로 개최할 예정이다.
- 포럼에는 폴란드 인프라부를 비롯하여 파베우 코발(Pawel Kowal) 폴란드 외교위원장 겸 총리실 우크라이나 협력위원회 위원장, 루슬란 크라브첸코(Ruslan Kravchenko) 우크라이나 키이우주지사 등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주요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 진 차관은 주요 인사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한·폴·우 정부 간 협력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기업 간 구체적인 사업협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해외 사업에 대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으로서 현지 경험이 풍부하며, 오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주도하는 중추 국가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폴란드 방문을 한·폴·우 정부 및 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 또한, “폴란드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스페인인 ENR 3위*의 해외건설 강국으로, 유럽, 중남미 네트워크가 풍부하여 우리기업들과 협력 가능성이 높다”며, “스페인과의 건설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신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미국 건설·엔지니어링 전문 주간지 ENR(Engineering News Record)에서 매년 전년 기준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매출을 집계하여 250대 글로벌 건설사 순위를 발표

담당 부서	건설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신형 (044-201-3516)
	해외건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원림 (044-201-3520)